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MERICAS

미주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9/28~10/04

1. 미국 수입 규제 강화에 따른 통관 절차 변화

2.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따른 항공화물 운송 확대

3. USMCA 협정 검토가 북미 공급망에 미칠 영향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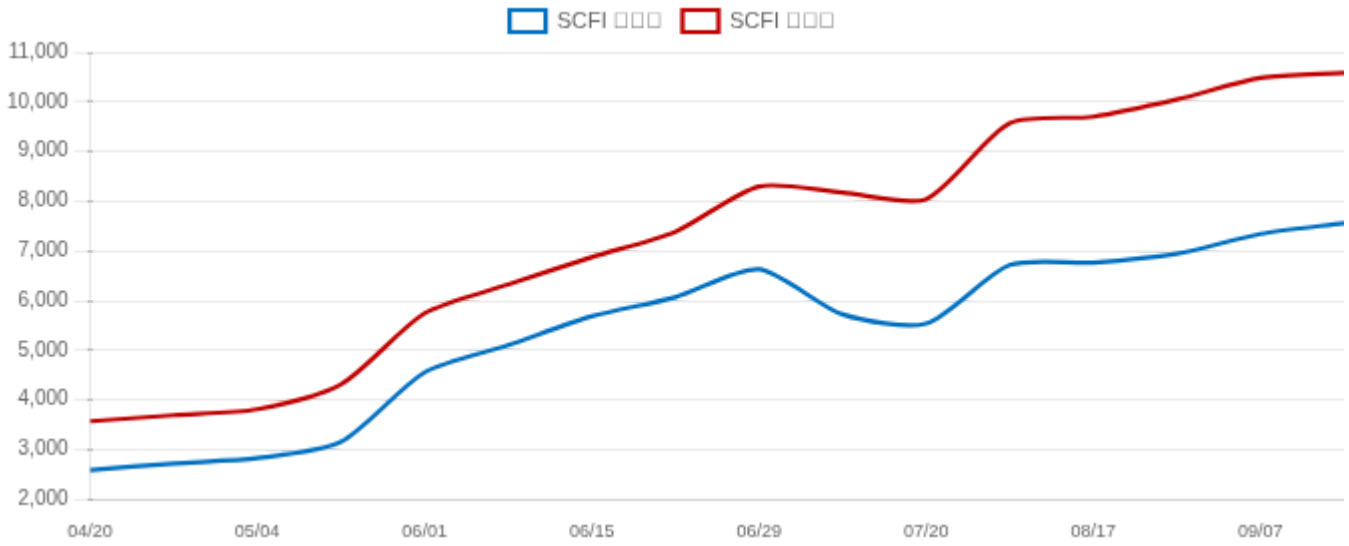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미주 권역에서는 미국의 통상 규제 강화와 첨단 산업 수요 확대라는 두 흐름이 동시에 부각됨.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수입자 번호 말소 조치를 즉시 시행하면서 통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대폭 강화되었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붐으로 항공화물 수요가 급증하며 태평양 횡단 노선 물동량이 전년 대비 이십사 퍼센트 증가함. 이러한 변화는 물류·공급망 관리의 정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통관 절차 강화는 수입자 정보의 정확성을 핵심 리스크로 부상시켜, 화주와 포워더의 사전 검증 부담이 커지고 통관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단기적 호재를 넘어 항공화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며, 아시아발 미국행 화물기 운항이 하루 평균 삼십삼 대에 달하는 등 공급 확대가 지속될 여지가 큼. 다만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가 물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업계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임.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미서안	7,560 $/FEU	09/14	+3.0%	+11.8%
SCFI 미동안	10,579 $/FEU	09/14	+1.0%	+9.1%
KCCI 미서안	8,000	09/28	+0.7%	+11.1%
KCCI 미동안	11,294	09/28	+0.1%	+7.7%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9/14

미국 수입 규제 강화에 따른 통관 절차 변화

> **미국 CBP가 수입자 번호 말소 조치를 즉시 시행함으로써 통관 절차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대폭 강화됨. 이에 따라 화주와 포워더는 수입자 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9월 18일부터 수입자 기록(Form 5106)에 부정확하거나 차용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수입자 번호를 즉시 말소하는 조치를 시행함. 과거에는 정보 오류 시 시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제는 적발 즉시 수입 자격이 정지됨. 또한 번호 말소 통보가 사후 통보 방식이어서, 서류상 연락처로 등록된 브로커나 포워더가 먼저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번 규정 강화의 원인은 CBP가 수입자 정보의 정확성과 실소유주 검증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수입자 번호가 말소되면 해당 업체는 미국으로 물품을 들여올 수 없고, 재발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Form 5106 제출과 정확한 기업 정보 입증이 필요함. 특히 차용된 정보 사용을 근절하려는 목적이 큼.

이에 따라 미국발 수입 물량을 취급하는 화주와 포워더의 부담이 가중됨. 여러 화주의 통관을 일괄 처리하는 포워더는 화주로부터 받은 사업자 정보와 실제 미국 수입자 정보의 불일치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함. 수입자 번호 말소 시 화물 반입이 막혀 물류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함. 글로벌 포워더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신규 수입자나 해외 법인의 미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는 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 리스크가 특히 커질 전망임. 업계에서는 단순 실수나 서류상 오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음.

- CBP, 9월 18일부터 부정확한 Form 5106 정보 발견 시 수입자 번호 즉시 말소 시행
- 수입자 번호 말소 시 미국 반입 불가, 재발급에 정확한 기업 정보 입증 필요
- 사후 통보 방식으로 포워더나 브로커가 먼저 번호 말소 사실을 인지하게 됨
- 과거에는 시정 기회가 있었으나 이제는 적발 즉시 자격 정지로 규정 강화
- 글로벌 포워더,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 강화 움직임

전망

미국 세관의 수입자 관리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통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검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임. 포워더와 브로커는 화주 정보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화주는 정확한 수입자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함. 향후 신규 수입자나 미국 진출 초기 기업의 통관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

시사점

화주 — 수입자 정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포워더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와 실제 미국 수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함.

포워더/브로커 — 화주 정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Form 5106 작성 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항만·선사 — 수입자 번호 말소로 인한 화물 반입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통관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함.

참고자료: The Loadstar, US CBP tightens import rules – get the details right or else (검색일: 2026-10-04)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따른 항공화물 운송 확대

> **AI 데이터센터 붐이 항공화물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발 미국행 화물기 운항이 하루 평균 33대에 달하고 태평양 횡단 노선 물동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등 구조적 수요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관련 항공화물 수송 화물기가 하루 평균 33대 운항 중이며, 7월 한 달간 미국으로 수송된 관련 화물은 10만 7,000톤으로 화물기 약 1,000편에 해당하는 규모로 집계됨. 올해 1~7월 글로벌 항공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5.8% 성장했고, 태평양 횡단 노선 물동량은 24%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함. 이는 GPU,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요 급증에 기인함.

이러한 수요 급증은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에 따른 것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확대와 하드웨어 교체 주기 단축이 반복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데이터센터 물류 시장은 2025년 약 230억 달러에서 2030년 최소 35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미국 외 유럽, 인도, 호주 등에서도 인프라 확장이 진행 중임. 이에 따라 AI 관련 화물은 항공운송 전체 물량의 7%에 불과하지만 가치 기준으로는 53.5%를 차지해 높은 가치 밀도를 보임.

수요 집중으로 아시아-미국 노선 화물기 탑재율은 약 90%에 도달했고, AI 관련 화물이 65% 증가하면서 기존 일반 화물이 밀려나고 현물 운임이 상승하는 등 용량 부족 현상이 심화됨. 다만 DHL 글로벌 포워딩의 항공화물 총괄은 시장 전체 용량 부족보다는 기술 관련 노선의 선택적 타이트니스가 특징이라고 언급함. 고부가가치 화주는 운송비보다 일정 준수를 우선시하여 프리미엄 솔루션 확보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발 미국행 하이퍼스케일러 관련 화물기 일평균 33대 운항 (Aevean 집계)
- 2025년 1~7월 태평양 횡단 노선 항공화물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 7월 미국행 하이퍼스케일러 화물 10만 7,000톤 (화물기 약 1,000편 규모)
- 아시아-미국 노선 화물기 탑재율 약 90% 도달
- AI 관련 교역 가치의 3분의 2 이상이 항공편으로 운송, 전체 항공화물 가치의 53.5% 차지
- 데이터센터 물류 시장 2025년 230억 달러에서 2030년 350억 달러로 성장 전망

전망

데이터센터발 항공화물 수요는 미국 외 지역의 인프라 확장과 하드웨어 교체 주기 단축으로 인해 당분간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고부가가치 AI 관련 화물의 증가로 항공사와 포워더는 노선별 용량 관리와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일반 화물의 운송 지연과 운임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시사점

화주 — 고부가가치 AI 관련 화주는 운임보다 일정 준수를 우선시하므로, 항공사 및 포워더와의 장기 계약 및 프리미엄 솔루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운송 능력을 확보해야 함.

포워더 — 아시아-미국 등 기술 관련 노선의 용량 부족이 심화되므로, 전세기 확보 및 대체 노선 발굴 등 선제적 용량 관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항만·선사 — 해상운송 대비 항공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고부가가치 화물 시장에서 항만과 선사는 복합운송 연계와 항공연계 서비스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Air Freight News, 아시아발 미국행 화물기 하루 33대…데이터센터 특수 (검색일: 2026-10-04)

USMCA 협정 검토가 북미 공급망에 미칠 영향

> **2027년 USMCA 공동 검토를 앞두고 미국 USTR이 의견 수렴에 착수함으로써 북미 공급망의 핵심 통상 규범인 원산지 규정과 역내 부가가치 기준의 개정 가능성이 제기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7년으로 예정된 USMCA 공동 검토에 앞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함. 의견서 제출 마감은 2027년 1월 12일로 설정되었으며, 공청회도 별도로 개최될 예정임. 이는 USMCA 발효 이후 변화한 무역 환경과 협정 이행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공식 절차로 풀이됨.

이번 공동 검토는 미 의회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며, 북미 3국 간 통상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됨. 특히 자동차 부문의 원산지 규정과 역내 부가가치 비율(RVC)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 USMCA는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75%로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이 강화될 경우 북미 내 생산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함.

공동 검토 과정에서 규정이 강화될 경우, 북미 지역에 구축된 공급망의 비용 구조와 생산 거점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됨.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둔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원산지 충족을 위해 부품 조달처를 재편하거나 생산 공정을 조정해야 할 수 있음. 이는 역내 물동량의 변화와 물류 네트워크의 재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한편, 의견 수렴 결과는 2027년 초 이후에나 공개될 예정이어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임. 그러나 화주와 물류 기업들은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USTR, 2027 USMCA 공동 검토 의견 수렴 착수, 마감 2027년 1월 12일
- 자동차 부품 역내 부가가치 기준(현행 75%)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전망
- 규정 강화 시 멕시코·캐나다 생산 기지의 부품 조달처 재편 압력
- 의견 수렴 결과 및 공청회 일정은 USTR 웹사이트를 통해 순차 공개 예정

전망

USMCA 공동 검토는 북미 역내 무역 규범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역내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물동량 변동과 물류 수요 변화가 예상됨. 다만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임.

시사점

북미 지역 수출입 화주 — 원산지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부품 조달망과 생산 공정의 대체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해야 함.

포워더 및 3PL — 북미 역내 물동량의 지역별 편중 변화에 대비해 운송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멕시코·캐나다 진출 제조 기업 — 역내 부가가치 충족을 위한 공급망 재설계 시 물류 비용과 리드타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참고자료: USTR, 미 USTR, 2027년 USMCA 공동 검토 의견 수렴 착수 (검색일: 2026-10-04)